

MBC 귀중

2025년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5차)

결과 보고서

2025. 5. 16.

일러두기

- 본 조사의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척도형 문항(예: 매우 + 다소)의 두 개 응답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척도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언론 공표 혹은 인용 시에는 조사개요를 참고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 보도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6
II. 조사 설계	7
III. 조사 내용	8
IV. 표본의 특성	9

2장. 조사 결과 분석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11
1. 정당지지도	11
2. 투표참여 의향	12
2-1. 투표 참여 시기	13
3. 21대 대선후보 지지도	14
3-1. 21대 대선후보 지지 강도	15
4. 당선 가능성	16

목차

II. 각종 현안	17
1. 21대 대선 관련 의견	17
2.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관련 평가	18
3.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관련 후보 지지도 영향 평가	19
4. 반이재명 단일화 필요성	20
5. 범보수 단일화 향후 전망	21
6.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	22
7.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발언 영향도	23
8. 이재명 중도보수론 주장 평가	24
9. 홍준표 지지층 이재명 지지 평가	25
10. TV 토론 후보 선택 영향도	26

1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II. 조사 설계

III. 조사 내용

IV. 표본의 특성

I.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주요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MBC 보도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Flow-Chart)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수집자료

-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후보
- 각종 현안



기대효과

전반적인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파악



보도 자료로 활용

II. 조사 설계

2025년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5차) (2025. 5. 16.)

조사 의뢰자	MBC
조사 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지역	전국
조사 기간	2025년 5월 14일 ~ 5월 15일 (2일간)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 크기	1,003명(가중값 적용 사례수: 1,003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로 피조사자를 할당
응답률	25.7%(총 3,904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3명이 응답 완료)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oint

2025년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5차) (2025. 5. 16.)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 정당지지도
- 투표참여 의향 및 시기
- 21대 대선후보 지지도 및 지지 강도
- 당선 가능성

각종 현안

- 21대 대선 관련 의견
-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관련 평가
-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관련 후보 지지도 영향 평가
- 반이재명 단일화 필요성
- 범보수 단일화 향후 전망
-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발언 영향도
- 이재명 중도보수론 주장 평가
- 홍준표 지지층 이재명 지지 평가
- TV 토론 후보 선택 영향도

IV. 표본의 특성

구분		실제조사 사례수	%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	%
전체		(1,003)	100	(1,003)	100
성별	남성	(503)	50	(497)	50
	여성	(500)	50	(506)	50
연령	18세-29세	(148)	15	(153)	15
	30대	(148)	15	(150)	15
	40대	(172)	17	(173)	17
	50대	(202)	20	(197)	20
	60대	(179)	18	(178)	18
	70세 이상	(154)	15	(152)	15
지역	서울	(190)	19	(188)	19
	인천/경기	(330)	33	(324)	32
	대전/충청(세종)	(99)	10	(109)	11
	광주/전라	(95)	9	(96)	10
	대구/경북	(100)	10	(98)	10
	부산/울산/경남	(147)	15	(147)	15
	강원/제주	(42)	4	(41)	4

2장

조사 결과 분석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후보

II.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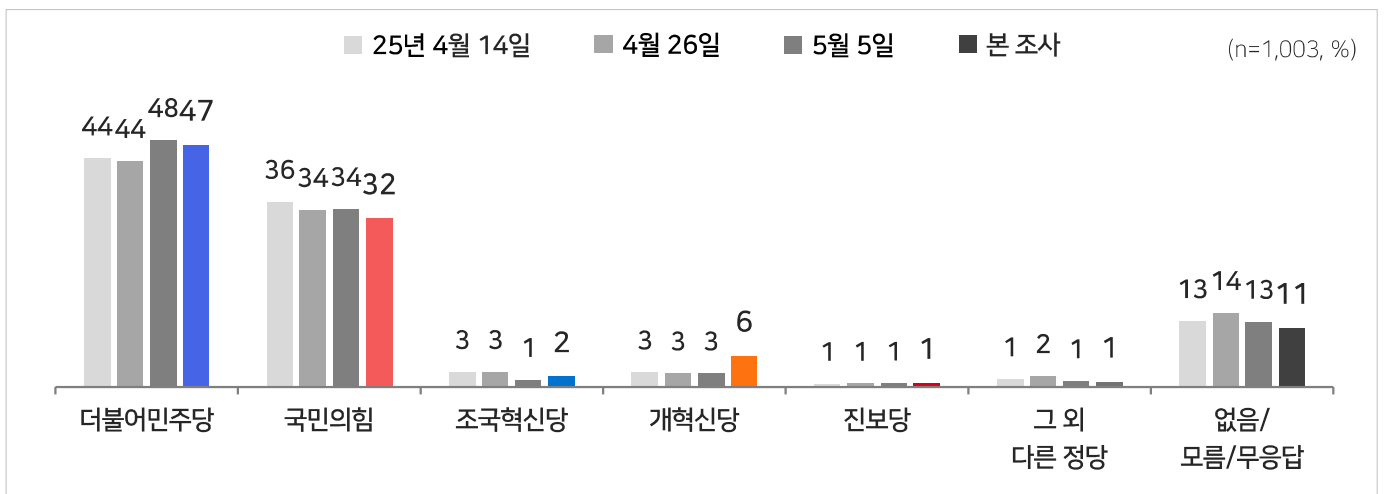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전망

1. 정당지지도

문1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순서는 무작위순입니다.
문1-1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되는 정당은요? 보기는 이전에 불러드린 순서와 동일합니다.

-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의힘' 32%,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2% 순임('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11%).
 직전 조사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개혁신당 지지도가 3%p 소폭 상승함.

- ✓ '더불어민주당'은 40대(63%), 50대(57%), 광주/전라(78%), 화이트칼라 종사자(53%), 중도 성향층(52%) 및 진보 성향층(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국민의힘'은 60세 이상(60대 43%, 70세 이상 55%), 대구/경북(60%), 부산/울산/경남(43%), 자영업 종사자(44%), 보수 성향층(64%)에서 높게 나타남.
- ✓ '개혁신당'은 30대 이하(18~29세 18%, 30대 12%), 학생(21%)에서 비교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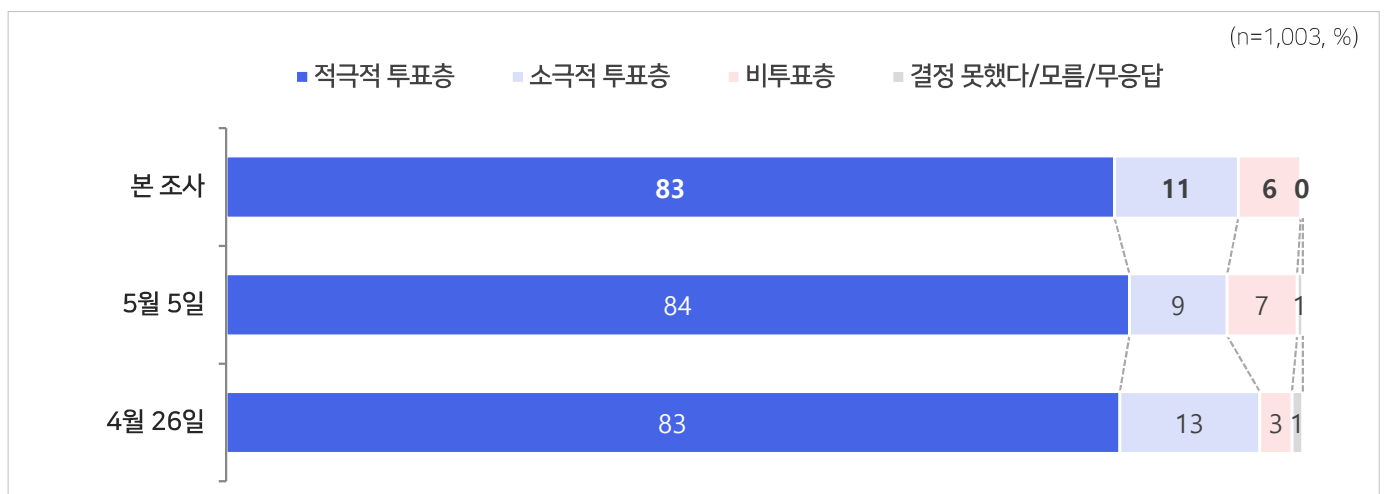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1,003)	47	32	2	6	1	1	11
연령	18세-29세 (148)	37	22	1	18	0	1	20
	30대 (148)	43	24	2	12	3	2	14
	40대 (172)	63	21	1	3	1	1	9
	50대 (202)	57	29	5	0	0	0	7
	60대 (179)	40	43	1	2	0	1	13
	70세 이상 (154)	35	55	1	2	0	1	6
지역	서울 (190)	46	32	0	9	2	1	11
	인천/경기 (330)	49	27	3	6	1	1	13
	대전/충청(세종) (99)	48	33	1	1	1	1	14
	광주/전라 (95)	78	8	4	3	0	0	7
	대구/경북 (100)	25	60	1	9	0	1	4
	부산/울산/경남 (147)	37	43	1	5	1	1	14
직업	강원/제주 (42)	41	35	5	5	0	2	12
	농/임/수산업 (23)	57	25	0	4	0	0	13
	자영업 (181)	43	44	2	3	1	1	6
	블루칼라 (198)	51	29	2	5	1	1	10
	화이트칼라 (262)	53	23	3	7	2	0	12
	주부 (165)	45	38	1	1	0	1	14
	학생 (75)	36	22	1	21	0	1	18
	무직/기타 (99)	36	43	2	7	0	1	11
이념 성향	보수 (303)	17	64	0	9	0	1	8
	중도 (353)	52	21	3	8	1	0	16
	진보 (257)	77	9	3	2	2	1	6
	모름/무응답 (90)	39	37	2	0	0	1	20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2. 투표참여 의향

문2 선생님께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83%,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 의향층은 11%, '투표할 생각 없다(전혀+별로)'는 비투표층은 6%로 나타남(결정 못했다/모름/무응답 0%).
- ☞ 투표참여 의향은 지난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재명 지지층(n=470)의 93%, 김문수 지지층(n=301)의 88%, 이준석 지지층(n=74)의 75%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함.
- ✓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50대(88%), 진보 성향층(9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0대 이하(18~29세 25%, 30대 16%), 학생(24%), 중도 성향층(1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반드시 투표할 것 (적극적 투표층)	가능하면 투표할 것 (소극적 투표층)	비투표층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결정 못했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83	11	6	2	3	0
연령	18세-29세 (148)	72	25	3	1	2	0
	30대 (148)	77	16	7	2	5	0
	40대 (172)	87	10	3	2	1	0
	50대 (202)	88	8	5	2	3	0
	60대 (179)	85	6	9	3	6	0
	70세 이상 (154)	84	7	8	3	5	1
직업	농/임/수산업 (23)	82	4	13	13	0	0
	자영업 (181)	87	7	7	3	4	0
	블루칼라 (198)	79	13	8	3	4	0
	화이트칼라 (262)	86	12	2	1	1	0
	주부 (165)	83	10	7	3	4	0
	학생 (75)	71	24	5	1	4	0
	무직/기타 (99)	81	10	7	2	5	2
이념 성향	보수 (303)	81	12	7	3	4	1
	중도 (353)	79	15	6	3	4	0
	진보 (257)	93	3	4	2	2	0
	모름/무응답 (90)	73	19	8	2	5	0
지지 후보	이재명 (470)	93	6	1	0	1	0
	김문수 (301)	88	9	3	1	1	0
	이준석 (74)	75	17	7	4	3	1
	지지 유보층 (145)	44	31	25	10	15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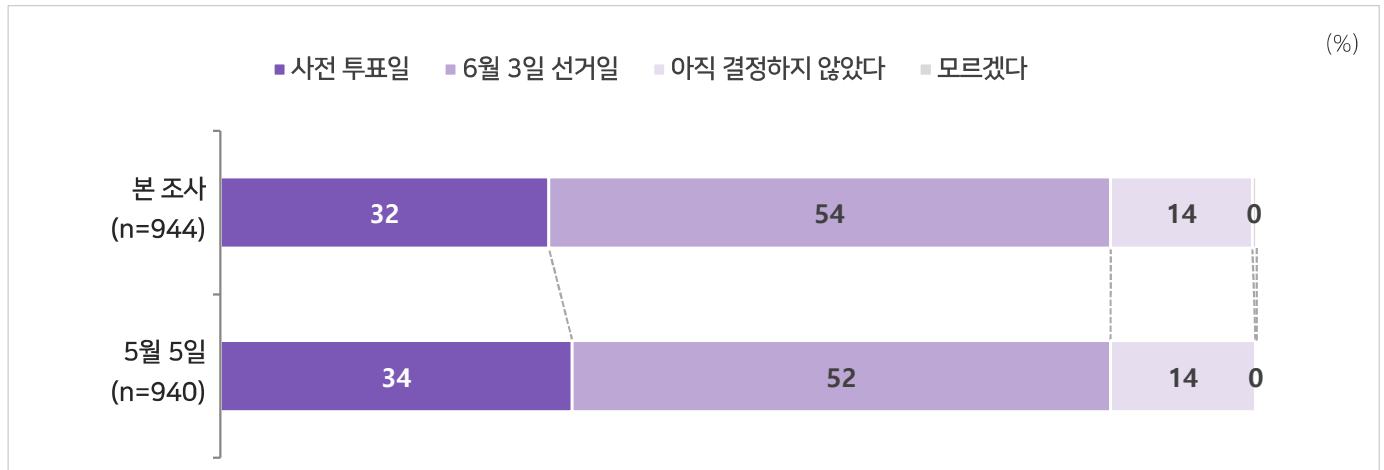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2-1. 투표참여 시기

문2-1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이고, 사전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일은 5월 29일과 30일입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투표를 하게 된다면 사전투표일에 투표 하시겠습니까?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하시겠습니까?

- 투표의향층과 투표유보층(n=944)에게 투표 참여 시기를 조사한 결과, '6월 3일 선거일'은 54%, '사전 투표일'은 32%로 나타남.
- 실제 투표층에 가까운 적극적 투표 의향층(n=828)에서는 '6월 3일 선거일'이 54%, '사전투표일'은 33%로 조사됨.
☞ 지난 5월 5일 조사 대비, '사전 투표일' 응답은 2%p 하락한 반면, '6월 3일 선거일' 응답은 2%p 상승함.
- ✓ '6월 3일 선거일'은 70세 이상(65%), 주부(66%), 보수 성향층(69%), 국민의힘 지지층(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사전 투표일'은 40대(40%), 화이트칼라 종사자(39%), 진보 성향층(4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사전 투표일	6월 3일 선거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전체	(944)	32	54	14	0
적극적 투표층	(828)	33	54	13	0
연령	18세-29세 (143)	28	50	23	0
	30대 (138)	33	57	9	0
	40대 (167)	40	47	13	0
	50대 (192)	36	51	13	0
	60대 (162)	30	57	11	1
	70세 이상 (142)	20	65	13	1
직업	농/임/수산업 (20)	25	59	15	0
	자영업 (169)	32	56	11	0
	블루칼라 (183)	34	53	13	0
	화이트칼라 (256)	39	47	13	0
	주부 (153)	23	66	9	2
	학생 (71)	27	47	26	0
	무직/기타 (92)	24	58	17	1
이념 성향	보수 (283)	21	69	10	0
	중도 (331)	36	45	19	1
	진보 (247)	43	45	12	0
	모름/무응답 (83)	21	66	11	2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57)	45	40	14	0
	국민의힘 (308)	12	77	11	1
	개혁신당 (58)	26	55	19	0
	무당층 (85)	26	54	19	1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전망

3. 21대 대선후보 지지도

문3

내일이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후보는 기호순으로 불러드립니다.

- 21대 대선후보 지지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0%,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15%).
 - 대선후보 확정일(5월 11일) 이전 조사한 가상대결(이재명 vs. 김문수 vs. 이준석)과 비교해보면, 5월 5일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는 3%p 하락, '이준석' 후보는 2%p 상승함.
 - 부산/울산/경남(n=147)에서 '이재명' 후보(36%)와 '김문수' 후보(37%)가 오차범위 내 접전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0대(65%), 50대(61%), 광주/전라(77%), 진보 성향층(81%), 정권교체 지지층(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60세 이상(60대 42%, 70세 이상 52%), 대구/경북(52%), 부산/울산/경남(37%), 보수 성향층(59%), 정권재창출 지지층(7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30대 이하(18~29세 20%, 30대 17%)에서 높은 편임.

(n=1,003, %)



5월 5일	50	29	5	-	-	-	15
4월 26일	48	23	8	-	-	-	21

※ 4월 26일, 5월 5일 조사에서는 3인 가상대결 구도로 가정하여 조사

※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응답이 없어서 제외

구분	사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무소속 황교안	무소속 송진호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1,003)	47	30	7	0	1	0	15
연령	18세~29세 (148)	34	17	20	1	0	1	29
	30대 (148)	39	22	17	0	0	0	22
	40대 (172)	65	18	5	1	2	0	10
	50대 (202)	61	27	0	0	1	0	10
	60대 (179)	42	42	3	0	1	0	13
	70세 이상 (154)	35	52	3	1	1	0	8
지역	서울 (190)	44	31	10	2	1	1	13
	인천/경기 (330)	51	25	9	0	0	0	15
	대전/충청(세종) (99)	49	30	5	0	0	0	15
	광주/전라 (95)	77	7	2	0	0	0	13
	대구/경북 (100)	27	52	9	0	0	0	12
	부산/울산/경남 (147)	36	37	5	0	3	0	18
이념 성향	강원/제주 (42)	41	30	10	0	2	0	17
	보수 (303)	19	59	10	0	1	0	12
	중도 (353)	49	19	10	0	1	0	20
	진보 (257)	81	8	2	1	1	0	8
	모름/무응답 (90)	38	36	3	1	0	0	22
대선 관련 의견	정권재창출 (323)	6	77	3	0	1	0	12
	정권교체 (566)	76	4	10	1	0	0	9
	모름/무응답 (114)	16	24	8	0	2	0	49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전망

3-1. 21대 대선후보 지지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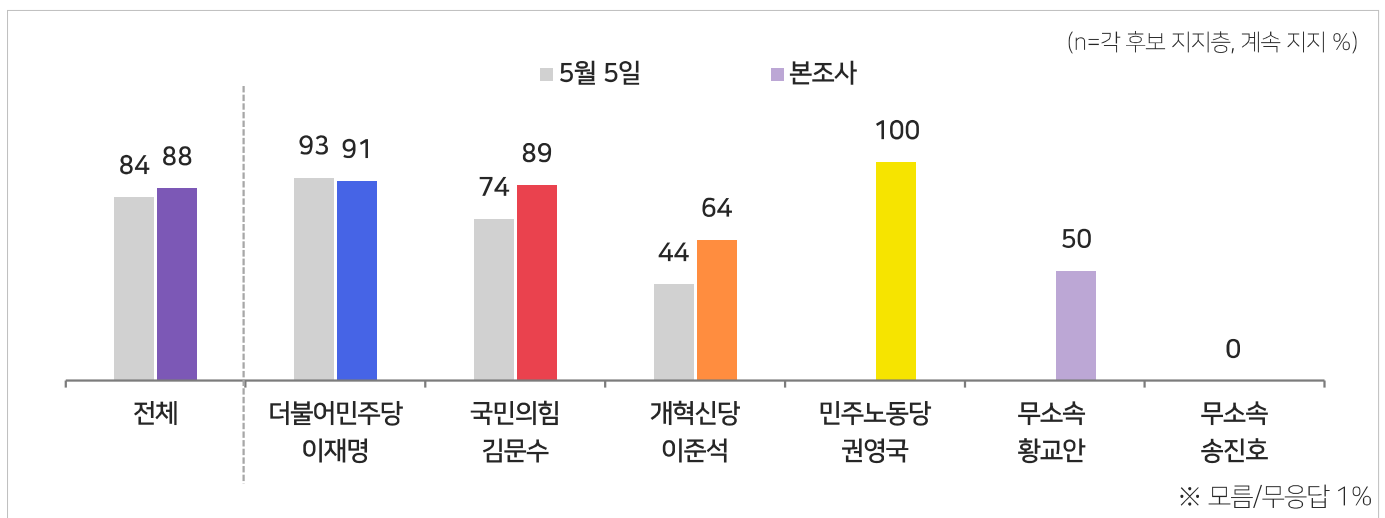
문3-1

(문3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밝힌 응답자에 한해)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 응답자 5명 중 4명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88%)한 반면,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1%로 나타남.
 - ☞ 후보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지지층(n=470)의 91%, 김문수 지지층(n=301)의 89%, 이준석 지지층(n=74)의 64%가 지지 후보에 대한 계속 지지 의향을 밝힘.
 - ☞ 이전 조사 대비 이준석 지지층의 지지 강도는 20%p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김문수 지지층의 지지 강도는 15%p 상승함.

- ✓ '계속 지지하겠다'는 50세 이상(50대 95%, 60대 97%, 70세 이상 93%), 이재명 지지층(9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는 30대 이하(18~29세 28%, 30대 22%), 이준석 지지층(36%)에서 비교적 높은 편임.



※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응답이 없어서 제외

구분	사례수	계속 지지하겠다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	모름/ 무응답
전체	(858)	88	11	1
연령	18세-29세 (106)	70	28	2
	30대 (117)	78	22	0
	40대 (155)	87	11	1
	50대 (182)	95	4	1
	60대 (156)	97	3	0
	70세 이상 (142)	93	7	0
지역	서울 (166)	87	13	1
	인천/경기 (280)	90	10	0
	대전/충청(세종) (84)	90	9	1
	광주/전라 (83)	91	7	1
	대구/경북 (88)	83	17	0
	부산/울산/경남 (122)	89	9	2
	강원/제주 (35)	74	26	0
지지 후보	이재명 (470)	91	8	1
	김문수 (301)	89	10	0
	이준석 (74)	64	36	0
	권영국 (4)	100	0	0
	황교안 (8)	50	37	13
	송진호 (1)	0	1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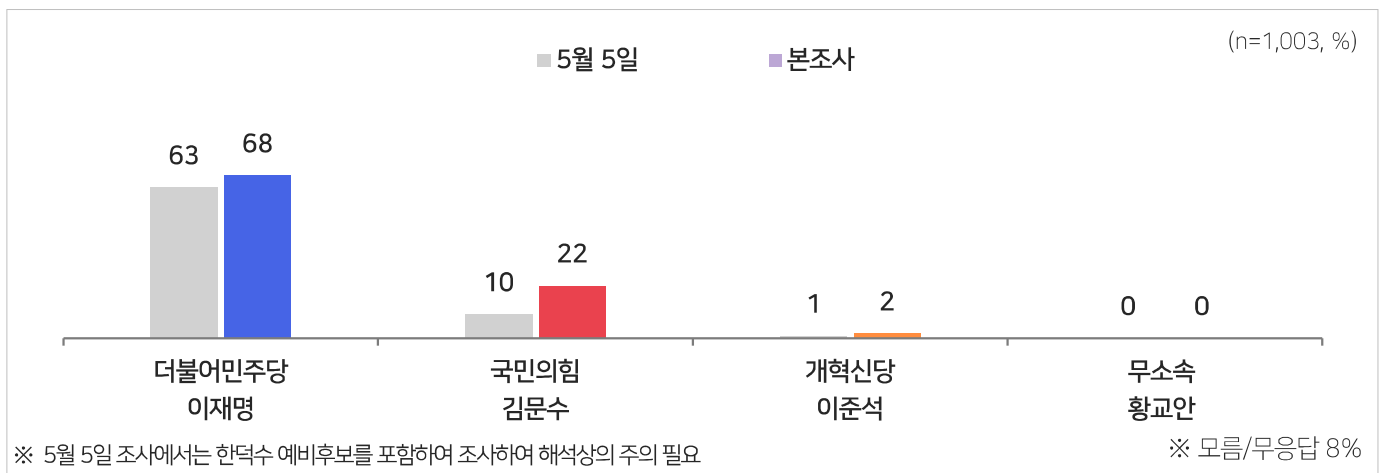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전망

4. 당선 가능성

문4

그러면, 선생님의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무작위순입니다.

- 대선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 등의 순임('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8%).
☞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세인 대구/경북(n=100), 부산/울산/경남(n=147)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가능성(각 49%, 57%)이 '김문수' 후보(각 35%, 30%)보다 더 높게 나타남.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0대 이하(18~29세 76%, 30대 78%, 40대 81%), 광주/전라(94%), 중도 성향층(77%), 진보 성향층(88%)에서 특히 높음.
-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60세 이상(60대 33%, 70세 이상 38%), 대구/경북(35%), 부산/울산/경남(30%), 보수 성향층(4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응답이 없어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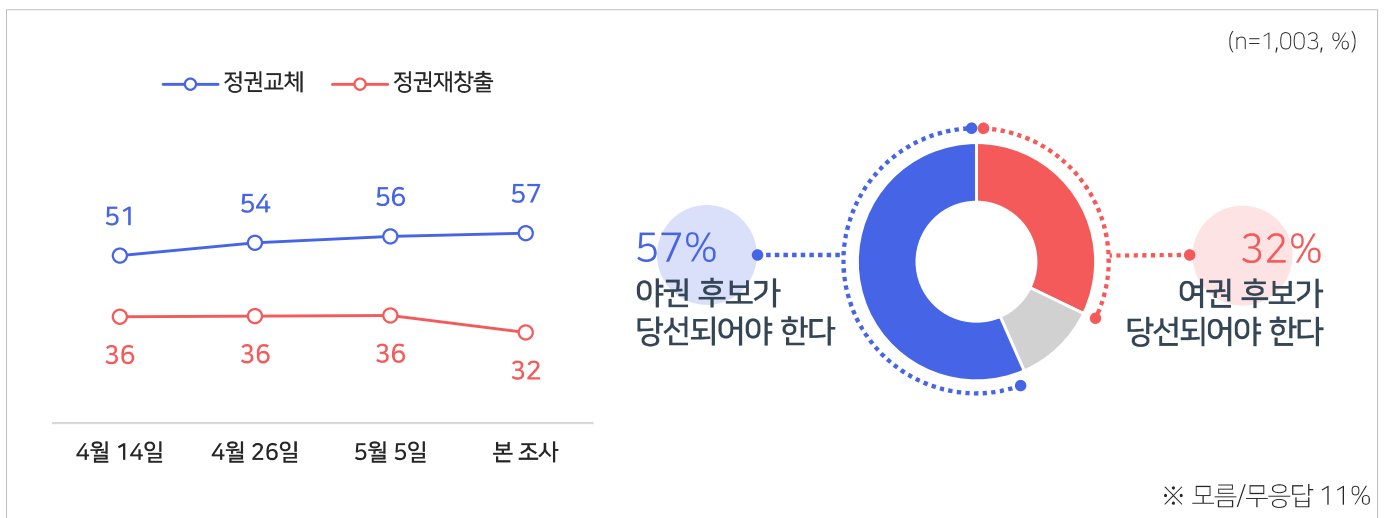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무소속 황교안	모름/무응답
전체	(1,003)	68	22	2	0	8
연령	18세-29세 (148)	76	10	4	0	10
	30대 (148)	78	12	3	0	8
	40대 (172)	81	12	1	1	5
	50대 (202)	71	23	1	1	4
	60대 (179)	56	33	1	0	10
	70세 이상 (154)	47	38	0	0	15
지역	서울 (190)	71	22	2	0	5
	인천/경기 (330)	71	19	2	1	8
	대전/충청(세종) (99)	65	23	2	0	10
	광주/전라 (95)	94	4	0	0	2
	대구/경북 (100)	49	35	1	0	15
	부산/울산/경남 (147)	57	30	2	1	9
이념 성향	강원/제주 (42)	62	18	0	0	20
	보수 (303)	46	42	2	1	10
	중도 (353)	77	14	1	1	7
	진보 (257)	88	8	2	0	3
	모름/무응답 (90)	51	25	2	0	22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66)	98	1	0	0	1
	국민의힘 (329)	27	60	0	1	12
	개혁신당 (60)	72	2	15	0	12
	무당층 (112)	55	11	5	0	29

II. 각종 현안

1. 21대 대선 관련 의견

문5 21대 대선과 관련하여 다음 의견 중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21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32%) 대비 25%p 높음(모름/무응답 11%).
 ☞ 직전 조사 대비 '정권재창출' 의견이 4%p 하락한 한편, '정권교체' 의견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40대(71%), 광주/전라(79%), 중도 성향층(66%), 진보 성향층(8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개혁신당 지지층(7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60세 이상(60대 42%, 70세 이상 50%), 대구/경북(53%), 부산/울산/경남(39%), 보수 성향층(62%), 국민의힘 지지층(8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32	57	11
연령	18세-29세 (148)	21	61	18
	30대 (148)	30	61	9
	40대 (172)	21	71	9
	50대 (202)	30	62	8
	60대 (179)	42	47	11
	70세 이상 (154)	50	35	15
지역	서울 (190)	30	61	9
	인천/경기 (330)	30	59	11
	대전/충청(세종) (99)	33	51	15
	광주/전라 (95)	13	79	8
	대구/경북 (100)	53	36	12
	부산/울산/경남 (147)	39	49	12
이념 성향	강원/제주 (42)	30	58	12
	보수 (303)	62	27	10
	중도 (353)	23	66	10
	진보 (257)	12	84	4
	모름/무응답 (90)	23	39	39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66)	4	92	5
	국민의힘 (329)	82	7	12
	개혁신당 (60)	15	72	13
	무당층 (112)	24	35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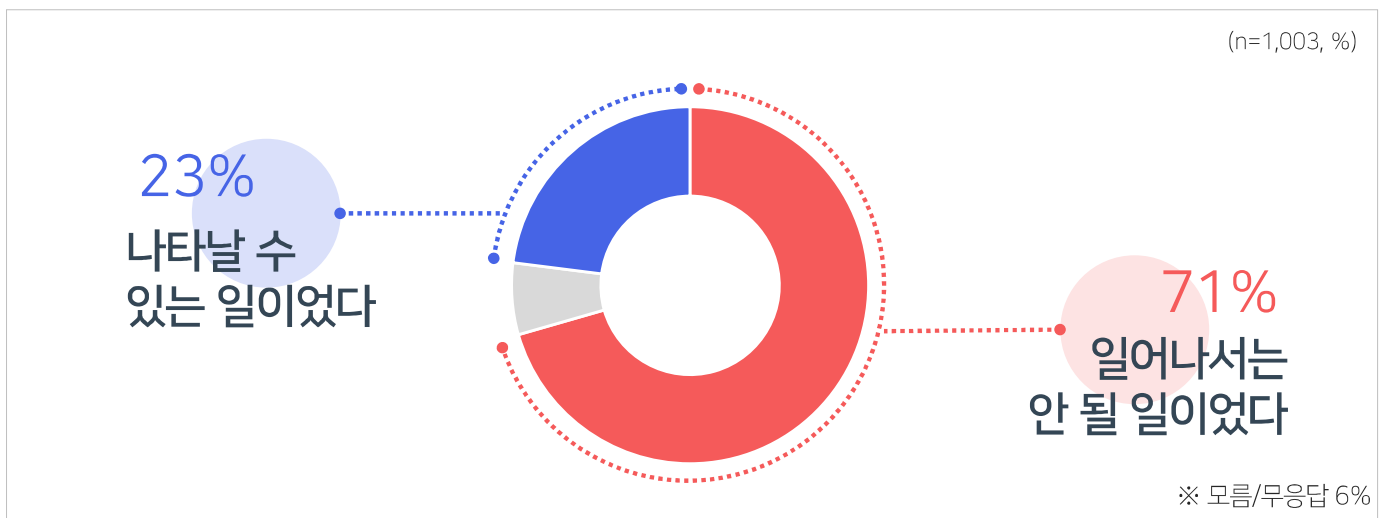
II. 각종 현안

2.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관련 평가

문6

국민의힘은 김문수와 한덕수 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내분을 겪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의 내분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응답(23%)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남(모름/무응답 6%).
☞ 김문수 지지층(n=301)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 45%, '일어나서는 안 될 일' 52%로 의견이 갈렸으며, 지지 후보층(n=145)의 과반이(51%)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응답함.
- ✓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18~29세(31%), 부산/울산/경남(30%), 보수 성향층(34%), 국민의힘 지지층(4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광주/전라(87%), 진보 성향층(8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었다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23	71	6
연령	18세~29세 (148)	31	62	7
	30대 (148)	22	69	8
	40대 (172)	16	76	8
	50대 (202)	21	74	4
	60대 (179)	24	72	4
	70세 이상 (154)	24	68	8
지역	서울 (190)	25	71	3
	인천/경기 (330)	21	71	8
	대전/충청(세종) (99)	23	69	7
	광주/전라 (95)	6	87	6
	대구/경북 (100)	30	66	4
	부산/울산/경남 (147)	30	61	9
이념 성향	강원/제주 (42)	25	70	5
	보수 (303)	34	62	3
	중도 (353)	21	73	6
	진보 (257)	13	81	5
	모름/무응답 (90)	20	56	25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66)	8	86	6
	국민의힘 (329)	45	52	4
	개혁신당 (60)	18	79	3
	무당층 (112)	27	54	19
지지 후보	김문수 (301)	45	52	3
	이준석 (74)	22	75	3
	지지 후보층 (145)	32	51	18

II.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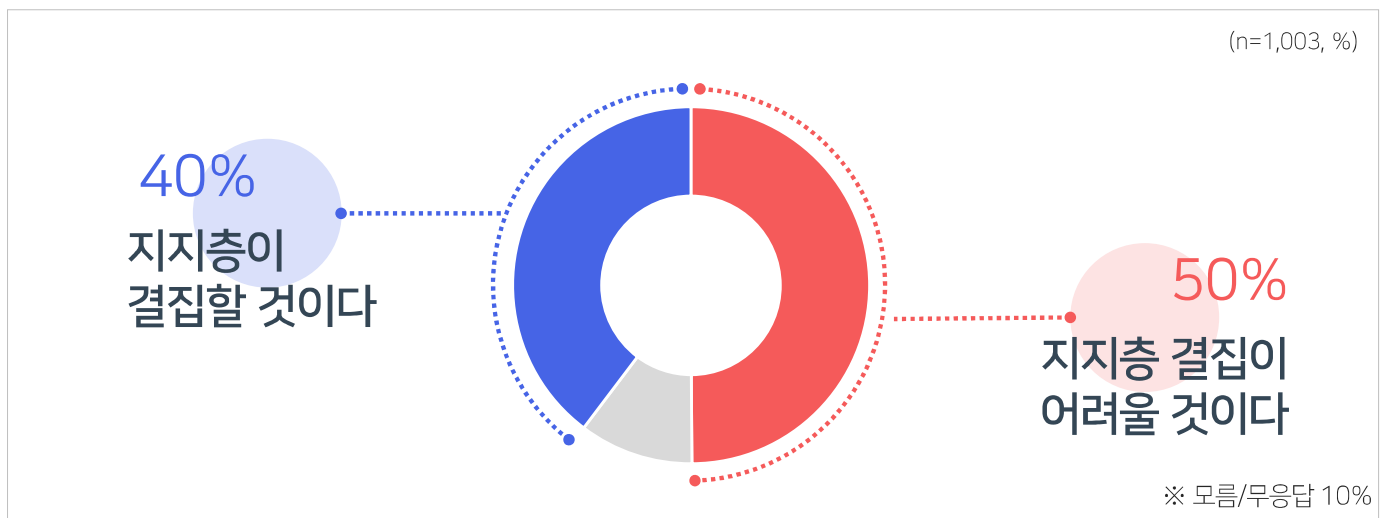
3.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관련 후보 지지도 영향 평가

문7

선생님께서서는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갈등이 지속되어 지지층 결집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50%로, '후보가 확정된 만큼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라는 응답(40%) 대비 10%p 높게 나타남(모름/무응답 10%).
☞ 김문수 지지층(n=301)의 78%가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고 전망한 한편, 지지 유보층(n=145)의 48%가 '지지층 결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함.

- ✓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는 70세 이상(48%), 보수 성향층(6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지지층 결집이 어려울 것이다'는 40대(59%), 중도 성향층(57%), 진보 성향층(6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후보가 확정된 만큼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갈등이 지속되어 지지층 결집이 어려울 것이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40	50	10
연령	18세-29세 (148)	39	52	10
	30대 (148)	36	51	13
	40대 (172)	29	59	12
	50대 (202)	41	53	6
	60대 (179)	46	47	7
	70세 이상 (154)	48	35	17
지역	서울 (190)	42	50	8
	인천/경기 (330)	39	50	11
	대전/충청(세종) (99)	39	49	11
	광주/전라 (95)	27	59	14
	대구/경북 (100)	44	46	10
	부산/울산/경남 (147)	41	48	11
이념 성향	강원/제주 (42)	48	45	7
	보수 (303)	61	33	5
	중도 (353)	34	57	9
	진보 (257)	25	67	8
	모름/무응답 (90)	31	31	38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66)	22	68	10
	국민의힘 (329)	73	21	7
	개혁신당 (60)	32	68	0
	무당층 (112)	26	47	27
지지 후보	김문수 (301)	78	16	6
	지지 유보층 (145)	29	48	23

II.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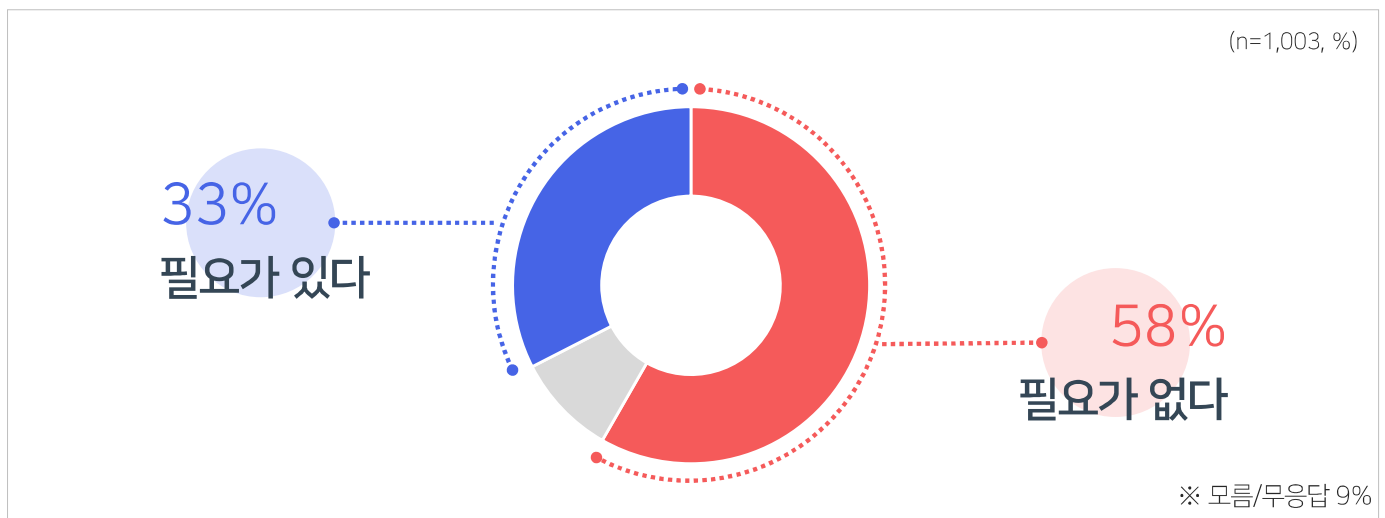
4. 반이재명 단일화 필요성

문8

선생님께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58%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33%) 대비 25%p 높게 나타남(모름/무응답 9%).
 ☞ 지지 유보층(n=145)의 경우,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1%,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3%로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갈림.

- ✓ '필요가 있다'는 70세 이상(40%), 대구/경북(44%), 보수 성향층(4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필요가 없다'는 40대(68%), 50대(65%), 광주/전라(76%), 진보 성향층(7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33	58	9
지지 유보층	(145)	41	43	16
연령	18세-29세	(148) 36	53	11
	30대	(148) 40	53	7
	40대	(172) 24	68	7
	50대	(202) 26	65	8
	60대	(179) 32	60	8
	70세 이상	(154) 40	47	14
지역	서울	(190) 36	58	6
	인천/경기	(330) 29	60	11
	대전/충청(세종)	(99) 34	56	10
	광주/전라	(95) 16	76	7
	대구/경북	(100) 44	50	6
	부산/울산/경남	(147) 35	54	11
이념 성향	강원/제주	(42) 41	47	12
	보수	(303) 48	47	5
	중도	(353) 33	60	8
	진보	(257) 16	75	8
	모름/무응답	(90) 26	42	32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66) 15	76	9
	국민의힘	(329) 59	33	8
	개혁신당	(60) 26	72	2
	무당층	(112) 36	45	19

II.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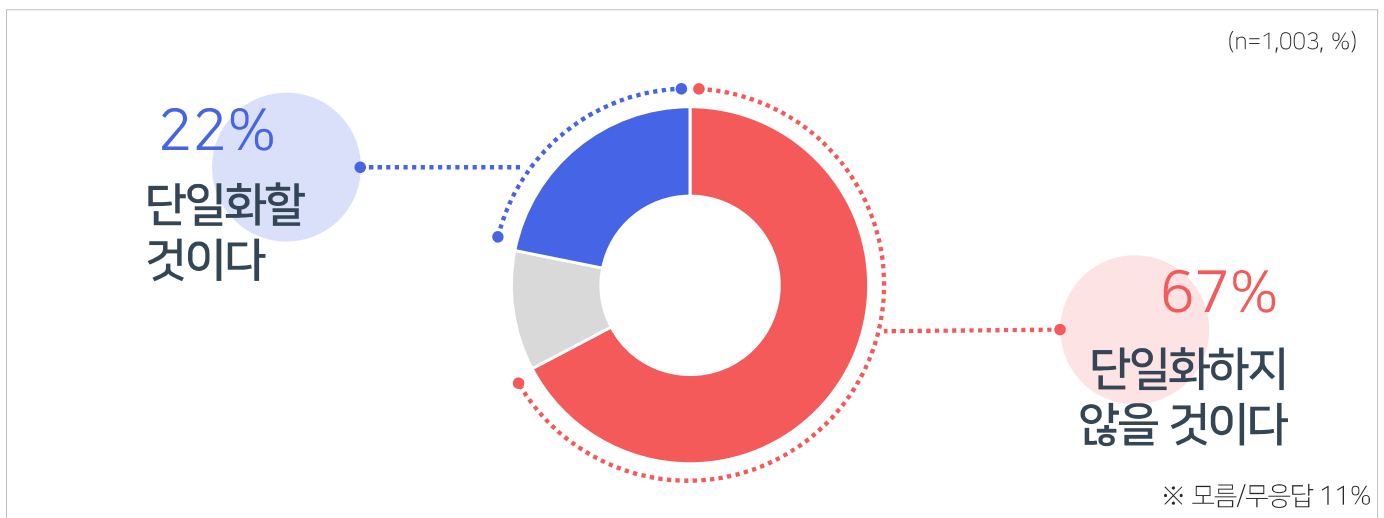
5. 범보수 단일화 향후 전망

문9

선생님께서서는 향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향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 '단일화하지 않을 것' 이란 전망이 67%로, '단일화' 예상(22%)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남(모름/무응답 11%).
 - 지지 유보층(n=145)의 56%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반이재명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n=325)의 과반(54%)이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단일화 가능성에 비관적인 분위기가 확인됨.

- ✓ '단일화할 것이다'는 보수 성향층(30%), 국민의힘 지지층(3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는 진보 성향층(7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7%), 개혁신당 지지층(9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단일화 할 것이다	단일화 하지 않을 것이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22	67	11
지지 유보층	(145)	28	56	16
연령	18세-29세	19	69	12
	30대	24	66	9
	40대	17	73	10
	50대	23	66	11
	60대	23	69	8
	70세 이상	25	59	16
지역	서울	22	69	8
	인천/경기	21	69	10
	대전/충청(세종)	26	61	13
	광주/전라	17	73	10
	대구/경북	19	68	13
	부산/울산/경남	22	66	12
이념 성향	강원/제주	31	50	19
	보수	30	61	9
	중도	21	70	9
	진보	15	78	7
지지 정당	모름/무응답	19	47	34
	더불어민주당	16	77	8
	국민의힘	32	54	14
	개혁신당	8	90	2
반영 단일화 필요성	무당층	26	53	21
	필요 있음	37	54	9
	필요 없음	15	80	6
모름/무응답	(91)	13	36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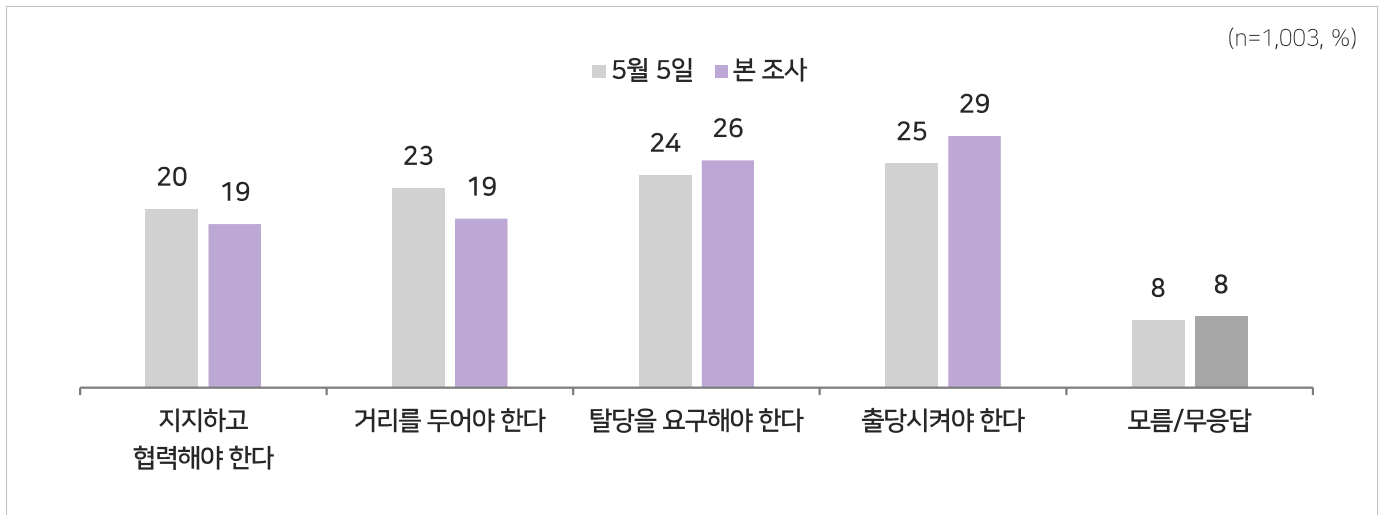
II. 각종 현안

6.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10 선생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향후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에 대해 '출당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 26%,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 각 19%로 나타남(모름/무응답 8%).
- ☞ 지난 조사 대비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4%p 하락한 반면, '출당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p 상승함
- ☞ 김문수 지지층(n=301)에서 '지지와 협력'이 47%, 지지 유보층(n=145)에서 '거리 둌'이 31%로 높음.

- ✓ '출당시켜야 한다'는 40대(37%), 50대(4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6%)에서 비교적 높음.
- ✓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진보 성향층(3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18~29세(32%), 보수 성향층(25%), 국민의힘 지지층(24%)에서 비교적 높음.
- ✓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70세 이상(32%), 보수 성향층(35%), 국민의힘 지지층(45%)에서 비교적 높은 편임.



구분	사례수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	거리를 두어야 한다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	출당시켜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19	19	26	29	8
연령	18세-29세 (148)	14	32	30	15	10
	30대 (148)	15	23	29	25	8
	40대 (172)	12	15	29	37	6
	50대 (202)	18	12	23	41	6
	60대 (179)	21	16	26	29	7
	70세 이상 (154)	32	19	18	20	12
지역	서울 (190)	20	17	24	32	7
	인천/경기 (330)	19	19	27	27	8
	대전/충청(세종) (99)	12	23	22	30	12
	광주/전라 (95)	6	14	33	42	5
	대구/경북 (100)	25	23	28	14	11
	부산/울산/경남 (147)	25	20	21	28	6
이념 성향	강원/제주 (42)	16	24	28	27	5
	보수 (303)	35	25	21	14	5
	중도 (353)	14	18	27	35	7
	진보 (257)	6	13	33	43	5
	모름/무응답 (90)	18	21	20	11	30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66)	4	13	32	46	5
	국민의힘 (329)	45	24	17	6	7
	개혁신당 (60)	2	25	31	32	10
	무당층 (112)	12	30	23	12	23
지지 후보	김문수 (301)	47	25	15	6	7
	지지 유보층 (145)	14	31	24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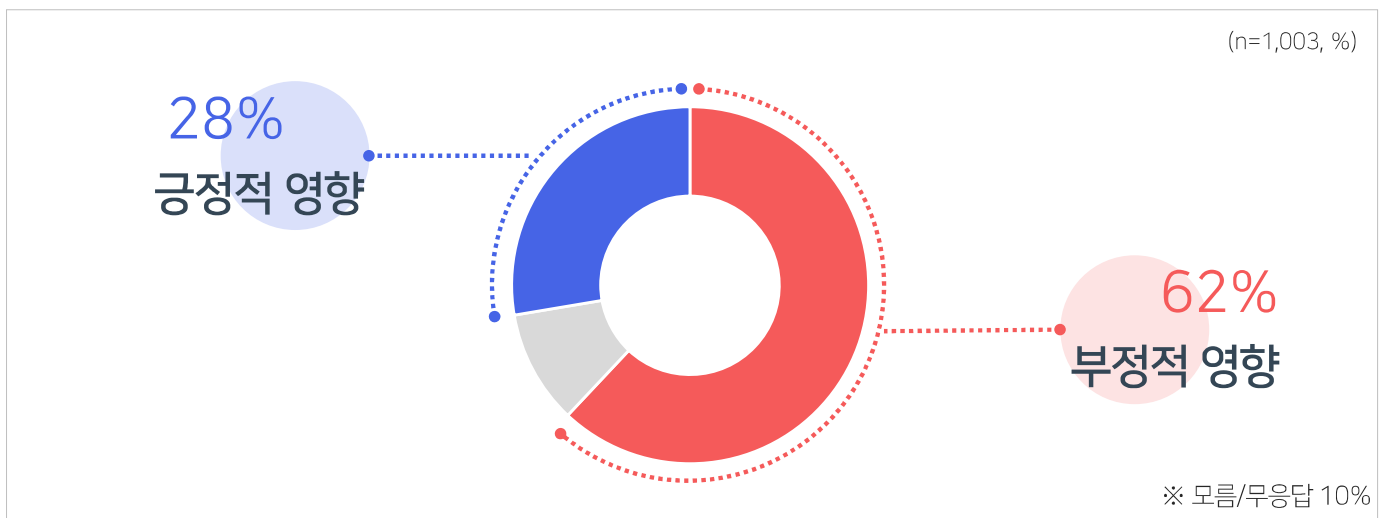
II. 각종 현안

7.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발언 영향도

문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견 표명이 김문수 후보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김문수 후보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2%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응답(28%)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남(모름/무응답 10%).
 국민회의 지지층(n=329)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5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66)과 개혁신당 지지층(n=60)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각 82%, 80%로 지지 정당별로 엇갈리는 반응이 나타남.
- ✓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는 70세 이상(44%), 대구/경북(45%), 보수 성향층(4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는 40대(73%), 50대(69%), 광주/전라(80%), 중도 성향층(69%), 진보 성향층(7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28	62	10
연령	18세-29세 (148)	25	62	13
	30대 (148)	28	60	12
	40대 (172)	19	73	7
	50대 (202)	24	69	7
	60대 (179)	28	65	7
	70세 이상 (154)	44	40	17
지역	서울 (190)	33	60	7
	인천/경기 (330)	26	64	10
	대전/충청(세종) (99)	22	64	15
	광주/전라 (95)	13	80	8
	대구/경북 (100)	45	46	9
	부산/울산/경남 (147)	31	56	13
이념 성향	강원/제주 (42)	19	67	14
	보수 (303)	47	45	8
	중도 (353)	22	69	9
	진보 (257)	13	78	9
	모름/무응답 (90)	25	45	30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66)	11	82	8
	국민의힘 (329)	59	30	11
	개혁신당 (60)	15	80	5
	무당층 (112)	18	59	23

II.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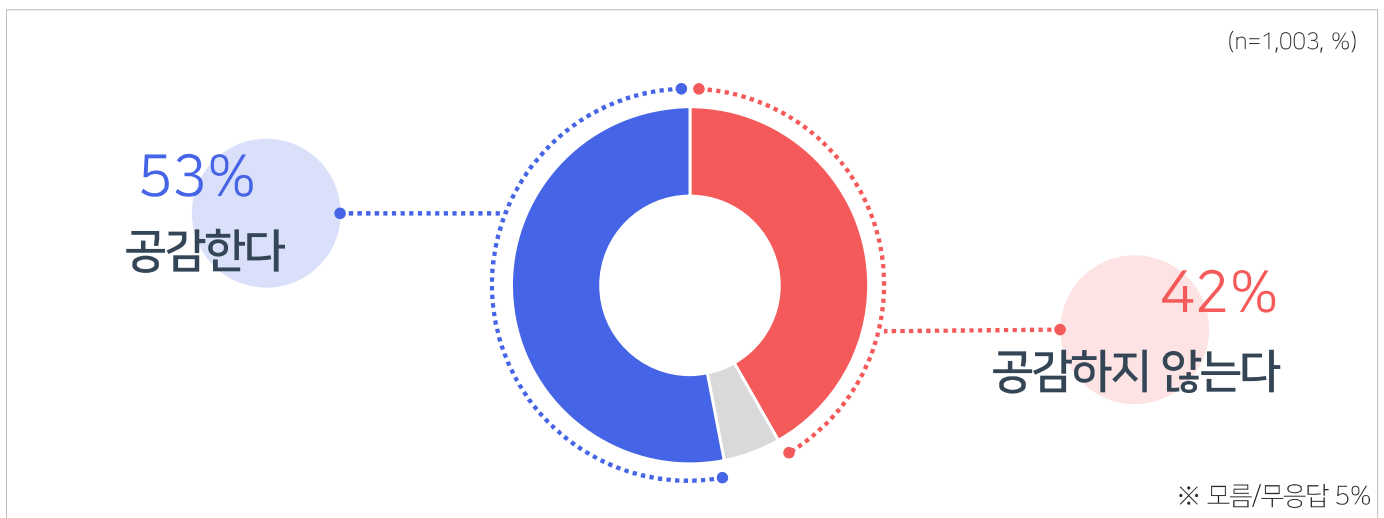
8. 이재명 중도보수론 주장 평가

문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좌든 우든,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론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42%) 대비 11%p 높게 나타남(모름/무응답 5%).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66)의 88%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n=329)과 개혁신당 지지층(n=60)은 각 84%, 7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 '공감한다'는 40대(66%), 50대(62%), 광주/전라(73%), 중도 성향층(61%), 진보 성향층(7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공감하지 않는다'는 60대(51%), 대구/경북(56%), 보수 성향층(7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이념보다 실용주의를 강조한 주장으로 공감한다	대선 승리만 노린 정략적 주장으로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53	42	5
연령	18세~29세	(148) 48	45	7
	30대	(148) 54	41	5
	40대	(172) 66	29	4
	50대	(202) 62	37	1
	60대	(179) 48	51	1
	70세 이상	(154) 38	49	13
지역	서울	(190) 50	44	6
	인천/경기	(330) 56	40	5
	대전/충청(세종)	(99) 56	37	7
	광주/전라	(95) 73	21	5
	대구/경북	(100) 40	56	5
	부산/울산/경남	(147) 46	49	5
이념 성향	강원/제주	(42) 46	52	2
	보수	(303) 27	71	3
	중도	(353) 61	36	4
	진보	(257) 78	20	2
	모름/무응답	(90) 41	30	28
	더불어민주당	(466) 88	9	3
지지 정당	국민의힘	(329) 12	84	4
	개혁신당	(60) 25	72	3
	무당층	(112) 36	44	19

II.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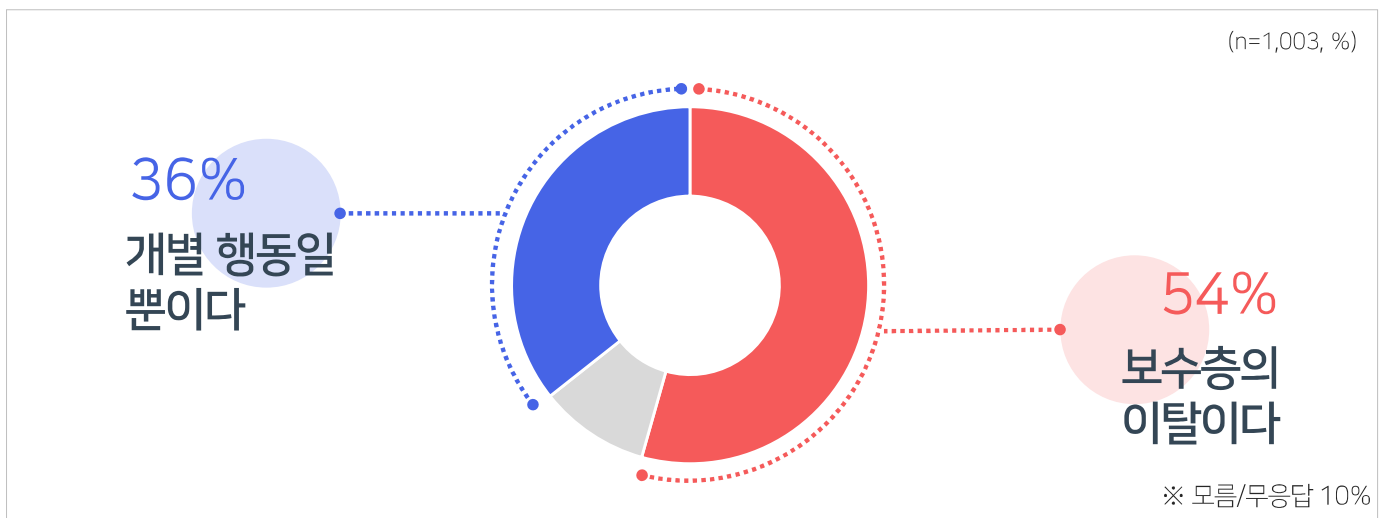
9. 홍준표 지지층 이재명 지지 평가

문13

선생님께서서는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의 지지자 일부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층 일부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층의 이탈'이라는 응답이 54%로, '지지자 일부의 개별 행동일 뿐'이라는 응답(36%) 대비 18%p 높음(모름/무응답 10%).
☞ 이재명 지지층(n=470)의 76%가 '보수층의 이탈'이라고 평가한 반면, 김문수 지지층(n=301)의 61%와 지지 유보층(n=145)의 45%는 '개별 행동일 뿐'이라고 평가함.

- ✓ '보수층의 이탈이다'는 40대(64%), 광주/전라(69%), 중도 성향층(60%), 진보 성향층(73%)에서 특히 높음.
- ✓ '개별 행동일 뿐이다'는 보수 성향층(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지지자 일부의 개별 행동일 뿐이다	국민의 힘에 실망한 보수층의 이탈이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36	54	10
연령	18세-29세 (148)	38	52	10
	30대 (148)	38	54	8
	40대 (172)	28	<u>64</u>	8
	50대 (202)	33	60	6
	60대 (179)	41	52	7
	70세 이상 (154)	37	40	23
지역	서울 (190)	42	53	5
	인천/경기 (330)	32	58	10
	대전/충청(세종) (99)	35	51	14
	광주/전라 (95)	18	<u>69</u>	13
	대구/경북 (100)	43	49	9
	부산/울산/경남 (147)	39	50	11
이념 성향	강원/제주 (42)	50	36	14
	보수 (303)	<u>54</u>	41	5
	중도 (353)	31	<u>60</u>	9
	진보 (257)	21	<u>73</u>	6
	모름/무응답 (90)	31	24	45
지지 후보	이재명 (470)	16	<u>76</u>	8
	김문수 (301)	<u>61</u>	29	10
	이준석 (74)	43	54	3
	지지 유보층 (145)	45	3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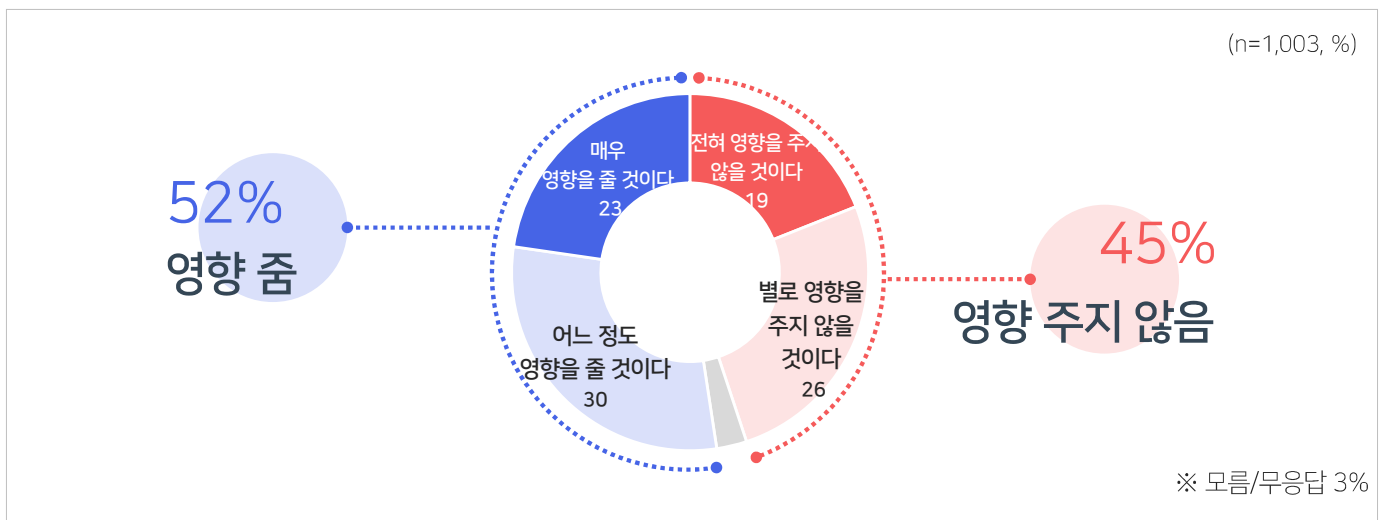
II. 각종 현안

10. TV 토론 후보 선택 영향도

문14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간의 TV토론이 선생님의 후보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 줌'(매우+어느정도)은 52%, '영향 주지 않음'(전혀+별로)은 45%임(모름/무응답 3%).

- ✓ '영향 줌'은 18~29세(60%), 개혁신당 지지층(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영향 주지 않음'은 40대(54%), 50대(56%), 진보 성향층(5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0%)에서 비교적 높음.



구분		사례수	매우 영향을 줄 것이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종합평가		
							영향 줌	영향 주지 않음	모름/무응답
전체		(1,003)	23	30	26	19	52	45	3
연령	18세-29세	(148)	21	38	28	11	<u>60</u>	39	1
	30대	(148)	19	39	30	11	58	41	1
	40대	(172)	20	25	25	29	45	<u>54</u>	1
	50대	(202)	17	26	26	31	44	<u>56</u>	0
	60대	(179)	26	29	24	19	55	43	2
	70세 이상	(154)	34	22	23	9	56	32	12
지역	서울	(190)	23	30	23	22	53	46	2
	인천/경기	(330)	21	29	28	20	50	48	2
	대전/충청(세종)	(99)	20	31	31	15	51	46	3
	광주/전라	(95)	28	24	28	15	52	43	5
	대구/경북	(100)	27	33	22	15	60	37	3
	부산/울산/경남	(147)	23	32	21	20	56	42	3
이념 성향	강원/제주	(42)	19	29	31	17	47	48	4
	보수	(303)	26	29	25	18	55	43	2
	중도	(353)	21	34	26	18	55	44	1
	진보	(257)	21	25	29	23	47	<u>53</u>	1
	모름/무응답	(90)	20	26	18	17	47	35	19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66)	21	28	27	23	49	<u>50</u>	1
	국민의힘	(329)	26	27	26	18	52	43	4
	개혁신당	(60)	29	46	23	2	<u>75</u>	25	0
	무당층	(112)	17	38	26	13	54	39	6

2025년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5차)

연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발행명 MBC 2025년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5차)

발행일 2025년 5월 16일

발행처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8, 석오빌딩
TEL : 02-3415-5100

<비매품>